

한국불교학회 동계 워크숍

# “불교명상이 요가와 다른 점은 사회적 영향력”

임승택 경북대 교수, 요가수행과 불교명상 차이 밝혀

“요가 명상의 ‘몸’에 대한 집중은 ‘나’에 대한 집중으로 이어져 개인적인 실천 차이를 벗어나기 힘들다. 반면에 초기 불교 명상은 관찰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을 고려하게 된다.”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요가수행과 불교명상’을 주제로 개최한 한국 불교학회(회장 김용표) 동계워크숍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임 교수는 2월 9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불교명상의 독특성에 관한 소고’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임승택 교수는 요가수행과 초기불교 명상의 특징을 비교·연구해 불교의 선정과 요가의 삼매에 대해 고찰했다.

“명상은 영어 메디테이션(meditation)

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현대 영어 사전에서는 ‘깊이 생각하는 것’과 ‘특정한 대상에 주의를 고정하고 유지 시키는 것’ 두 가지로 설명된다. 눈감을 명 ‘瞑’에 생각상 ‘想’을 쓰는 명상의 한자어 번역은 메디테이션의 원뜻이 모두 포함돼 잘된 번역이다”라고 말했다.

고대 요가의 사마타 명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마타는 선정과 모든 산란함이 멈춘 경지인 삼매(三昧, samādhī)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일정한 집중상태를 말하는 선(禪, 禪定, jhāna)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위빠사나는 붓다가 새로 고안해 보급시킨 명상법이다. 임승택 교수는 위빠사나를 사마타에서 좀 더 구체화·전문화시킨 것으로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관찰한다는 의미’라고 정의했다. 그는 “부처님도 처음 수행은 사마타 명상으로 시작했고 지혜의 개발을 통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명상법인 위빠사나를 탄생시켰다”고 덧붙였다.

4세기 무렵에 요가학파가 사마타 중심에서 통찰중심으로 옮겨 간 것을 두고 임 교수는 요가에서 출발한 불교가 다시 정통 요가학파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이런 면에서 초기 불교는 요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임승택 교수는 “불교 명상은 요가를 뛰어넘는 측면이 있다. 실재(reality)에 대한 통찰만이 내면을



한국불교학회 회원들이 2월 9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열린 동계 워크숍에서 요가 수행을 하고 있다.

다스리는 궁극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요가계 전반에 확산 시켰다”고 설명했다.

임승택 교수는 초기불교의 명상관련 가르침을 대표하는 경전인 <대념처경(大念處經)>의 알아차림[知]과 마음지킴[念]을 위빠사나 명상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원리라고 보았다.

임 교수는 초기불교 명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 육체적인 수련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신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급진적인 명상법을 꼽았다. 반면에 요가학파의 명상은 육체적 수련단계를 거쳐 선정이나 삼매로 구성된 심리적 단계로 넘어가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김용표 회장을 비롯해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최용훈 등 요가와 불교 관련 관계자 50여 명이 참

석했다. △임승택 원광대 교수는 ‘불교명상의 독특성에 관한 소고’ △김승금 원광대 교수는 ‘요가와 인도인의 정신세계’ △도창원 왕십리 요가명상센터원장은 ‘요가의 실천원리와 실수’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김승금 교수는 종교적 정서와 그것에 따른 축제나 가족 공동체 전통은 단순한 문화적 반영이 아닌 고대 경전과 요가사스트라의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요가사스트라로 본 요가와 인도인의 정신세계’에 대해 고찰 했다.

도창원 원장은 ‘요가의 실천 원리와 실수’에서 시대에 따라 요가의 방법은 변하고 있지만 삼매에 이르러 해탈을 얻는다는 요가의 최종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천진영 기자**

## “사이버 공간 활용해 포교 선도를”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 ‘선문화연구’서 강조

정보화로 표상되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동은 새로운 사회환경을 구축하며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이런 변화가 발현되는 대표적 공간으로 자리했다.

사이버 공간이 생활 속 종교활동에도 활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활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선문화연구> 제9집에서 정보사회에서 포교전략과 사이버공간의 활용방안을 고찰했다.

박 교수는 △불교정보의 집적과 유통(데이터베이스 활용) △의사소통구조 구축(미디어 활용) △불자공동체 건설 및 내실화(네트워크 활용) △종합선행공간

구축(생활세계 활용)으로 사이버 공간 활용법을 세분화해 그 관련성을 기술했다.

박 교수는 “사이버 공간은 현실공간과 달리 시간적 제약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불교계에서는 정보화라는 환경변화에 대해 인식이나 대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불교발전과 증흥을 위해 사이버 공간 활용의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 불교계가 포교와 관련해 개신교에 비해 뒤쳐지는 부분은 콘텐츠의 양과 질, 불교사이트의 수 등을 꼽지만 단순히 그 양과 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페이스북을 이용한 불교계 뉴스 전달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을 위한 다양한 불교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조선 불교 논쟁 시발된 문제작 완역

선운사 백파사상연구 ‘선문수경’ 초역·발간

백파 스님과 다성(茶聖)으로 불리던 초의 스님, 실학자 추사 김정희 선생과의 선논쟁(禪論爭)을 격발시켰던 <선문수경(禪文手鏡)>이 초역·발간됐다.

백파사상연구소(소장 선일)는 조선 후기 선문(禪門)의 대종사로 추앙받은 백파금선(白坡巨巖) 스님의 <선문수경>을 펴냈다.

<선문수경>은 조선 후기의 백파금선(白坡巨巖: 1767~1852)의 대표적인 저술로, <선가귀감> 이후 250여 년 만에 서산 대사의 선불교 정신이 유전된 전문 선서이다. 백파 스님은 책에서 일제종 사상을 강령화한 <선문강요(禪門綱要)>에 의

거해 임제삼구(臨濟三句)를 기준으로 선문의 여러 견해를 논변했다.

초의의순(1786~1866) 스님은 <선문사변만어(禪門四辨漫語)>를 통해 백파 스님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정희 선생(1786~1856) 백파 스님과 의견을 달리 했다. 이같은 논쟁에 우담홍기(優曇洪基, 1822~1881) 스님이 <선문증정록(禪門證正錄)>을 저술해 초의 스님을 옹호하고, 설두유형(雪寶有炯: 1824~1889) 스님이 <선원소류(禪源溯流)>를 통해 백파 스님을 옹호했다. 그러자 다시 범주사의 축원진하(竺願震河: 1861~1926) 스님이 <선문증정록(禪門再正錄)>을 지어 백파·설두 스님을 비판했다. <선문수경>을 계기로 100여 년에 걸쳐 이어졌던 선논쟁은 잠들어 있던 한국불교의 지성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동섭 기자**

## ‘천태학연구’ 제13집 발간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이 발간하는 <천태학연구> 제13집이 나왔다. 13집에는 △천태지관과 관음주송(지창규 동국대 교수) △관음 주송과 신행적 위치(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 등 천태불교학술대회 발표논문과 △현대 사회와 불교 관리제도 학술 토론회의 의의(인러스님, 중국 허난성 낙양 백마사 방장) 등 제13회 천태국제학술대회와 3차 한중포

럼 발표논문이 수록됐다.

공모논문으로 △원효의 교판인식에 대한 연구(노채숙 동국대 강사) △조선시대 천태교학의 이해와 그 불교사적 의미(김용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통일신라(범화경)의 유포와 그 특징(박광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민 의사 반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500m 토지 개발 제한 민원

앞으로 문화재 주변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월 3일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문화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반경 500m 내의 해당 토지 개발 및 건축물의 증·개축 등이 제한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가 크게 제한 받지만 현재는 사전조사 및 의견 수렴없이 조례로 획일적으로 지정돼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권익위는 권고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앞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준해 사전예고 절차를 거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 영향검토를 담당할 전문가의 업무상 과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무원 기준의 벌칙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현상변경허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는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근거를 알려 주고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 백제불교 문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유산 선정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2월 8일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와 익산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한 (가칭)백제역사유적지구와 남한산성 2건, 자연유산으로 서남해안갯벌 1건을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회의에서 선정했다.

이번에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유산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잠정목록 유산(11건) 및 잠정목록 등재 예정 유산(2건)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향후 2~3년

내내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으로, 최소 1년 전까지 등재된 유산만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무분별한 세계유산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각 국가별 등재 신청서 제출을 2건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9일 공주·부여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효율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백제문화연구소’를 설립 운영키로 했다. **천진영 기자**  
조동섭 전북지사장

# 원여불교의식(법음, 범패) 교육원 모집

## 교직자(포교사, 전법사) 전문교육원

본 원여불교 전법포교사단 부속 원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님, 법사, 포교사, 교양대학 수료자를 위한 대법사 양성 제 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강 주 | 보광스님 : 전등사(구 보타원) 회주 부산불교연합회 고문  
자인스님 : 길상사주지,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성각스님 : 흥은사주지 (은사스님에게 범음범패 20년 이수)  
성림스님 : 관음사주지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사무국장 이사 및 범패 전수 조교)
- 입학자격 | 본 원여불교 전법포교사단 부속 원여불교의식 교육원은 중단을 초월하여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스님 포교사전법사 불교교양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함
- 특 전 | ○ 본 교육원수료후 성적우수자는 부산영산보존회 범패 전수장학생으로 추천함  
○ 각 중단에서 불교의식을 주관하도록 함  
○ 본 교육원 승려후보생 중단등록 및 포교원(사찰) 창건의 자문에 응함
- 모집학과 | 기본과정(6개월) : 사물(요령목탁) 다루는 법, 송, 상단, 각단 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중급과정 (1년) : 제반의식(불공, 범음, 범패) 사물다루는 법, (광식 징 범고) 대령 관육 각종시식 실천(實傳)위주  
작법과정 (1년) : 바라작법 오공양작법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원서대 및 전형료 | 십이만원정 (120,000원)
- 수 강 료 | 무료
- 모집인원 | 200명(선착순)
- 모집기간 | 불기 2555년 2월 10일 (음 1월 8일) ~ 3월 10일 (음 2월 6일)
- 입 학 식 | 불기 2555년 3월 12일 (음 2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 강의장소 | 전등사(구 보타원) 큰법당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처 | 전등사(구 보타원 1층)
- 원서배부처 | 부산지역 : 전등사(구 보타원) (051) 243-0048  
부산불교연합회 (051) 867-0501  
현대불교신문부산지사 (051) 632-0064  
불교TV부산지사 (051) 852-9309  
경남지역 : 세심정사(합천) 011-822-6946  
경북지역 : 미타사(대구수성) (053) 767-7900  
울산지역 : 쌍암사(울산아음동) (052) 275-7875

### 원여불교 전법포교사단 불교의식 교육원

주소 : 부산 서대신동 3가 578번지 전등사(구 보타원) 051)243-0048 H·P 011-822-6946

명예총재 : 암도(여산) 보광(석성)

총재 : 향과(도림), 단장 : 법민, 부단장 : 자인, 사무총장 : 성월(혜명), 사무국장 : 진효(박도환), 재무국장 : 성덕(정상만)  
자문 : 현광(보리), 신흥(정허당), 설적운, 만청, 달오, 태일, 운영 : 법연(혜연), 지산(진성태), 해봉(강경중), 무심(현익재)